

화순전남대병원, 주사실 143병상 규모로 확장

환자 접수 대기시간 감소
치료 환경 등 만족도·효율성 ↑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주사실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다. 기존 94병상 규모였던 주사실은 49병상이 추가 설치되며 총 143병상으로 확대됐다.

2일 화순전남대병원은 대규모 리모델링을 통해 환자 대기시간 단축과 간호사 업무 효율성까지 향상되면서 진료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전남대병원 최근 주사실 리모델링을 기념해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개소식에는 민정준 병원장을 비롯해 강호철 진료부원장, 성명석 사무국장, 배홍범 기획실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간호부 임직원들이 참석해 환자 중심 의료환경 구축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공사로 기존 주사실은 '제1주사실'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낮병동 전용으로 사용되던 침상이 일반 주사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돼 병상 회전을 이 높여지고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항암치료를 받는 낮병동 환자들을 위한 '제2주사실'이 신설되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집중적인 전문 치료가 가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가운데)과 강호철 진료부원장 등 임직원들이 주사실 확장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능해졌다. 기존 2층에 있던 간편주사실은 3층으로 이전해 공간 배치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접수 시스템에도 변화를 줬다. 키오스크 기반의 스마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의 접수 대기시간을 줄이고, 동시에 대기 순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환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과 접수 및 안내 업무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시스템도 보강됐다. 환자 감시장치 10대를 새로 설치하고, 2병상당 1개 비율로 의료가스 배관을 확보해 긴급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창문이 많아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환기도 원활한 점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

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동선과 의료 장비 배치도 전면 재정비됐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사 처치의 정확성과 속도 역시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주사실은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진료를 받는 주요 공간이자 병원의 전체적인 진료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이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병원은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자 한 분 한 분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간호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 북부경찰, 교통질서 확립 합동캠페인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오지동 북부경찰서 사거리에서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이날 캠페인에는 김용관 북부경찰서장, 문인 북구청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을 상대로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무단 이용 금지, 안

전띠 착용 생활화 등에 대한 홍보활동과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 PM운전 시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김용관 북부경찰서장은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고 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개최해 교통질서 자율준수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선원노련, 전남대 여수캠퍼스 장학금 2000만원 전달

학생 20명에 각각 100만원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2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여수캠퍼스 수산해양관 1층 덕암홀에서 김용민 여수부총장, 서호영 수산해양대학장 등 보직자들과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금은 국가해기사양성지정교육학과인 기관시스템공학과, 해양생산관리학과, 해양경찰학과 학생 20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전달됐다.

박성용 위원장은 "선원노련은 여러분의 미래 직장인 선박현장이 더욱 안

전하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기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여수부총장은 "매년 해양 관련 교육기관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선원노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대학은 해양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원노련은 외항해운, 내항해운, 연근해어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선원 등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58개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로 선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개선, 각종 선원 정책·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쉽고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로 시민께 부응할 것”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 5대 관장

2년 연속 인기 관광지 1위 ‘쾌거’
실무 경험 바탕 경영 철학 주요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로 시민과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2024년 광주광역시 인기 관광지 1위 기관으로 선정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 기관 달성의 쾌거를 이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해 94만 2722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광주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한 곳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3년에도 83만6249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광주시 인기 관광지 1위에 선정된 국립광주과학관은 1년간 13%의 관람객 증가세를 보이며, 인기몰이에 속도를 더했다. 더불어 지난해 전국 5개 국립과학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명실상부 지역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립광주과학관의 급속 성장의 배경에는 2023년 취임한 이정구(사진) 국립광주과학관 5대 관장의 경영 철학이 주효했



다는 평이다. 이 관장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0년 이상 재직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을 역임한 과학관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는 취임 직후 '이에스지(ESG)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나섰고, 호남권 거점 과학관 역할 증대를 위해 중소규모 과학관을 지원하는 등 상생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또 '시민과 가까운 과학관'을 모토로 무료개방,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는 등 관람객 확보를 위한 전략을 펼쳤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고생물학을 전공한 이 관장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기획한 공룡특별전 '다이너소월드'가 63일간 하루 최대 관람객 3000명, 전체 5만명이 넘는 흥행을 기록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아울러 그간 버튼을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전시

품 중심이었던 상설전시관(생활과학존)을 개선해 직접 만지고 온몸으로 생생하게 과학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품을 대거 개발해 선보이기도 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행사도 연중 개최하고 있는데 △광주수학과과학축제(8만1342명 방문) △스페이스오딧세이 봄축제(2만7224명 방문)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2만7053명 방문) △아트사이언스페스티벌(1만396명 방문) 등 대규모 과학축제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과학과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술과 발효, 봄꽃, 명품의 비밀',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 등 성인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잇따라 선보였고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민을 위해 설, 추석 등 명절을 비롯해 4월 과학의 날, 5월 가정의 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주요 계기일을 기념해 무료 개관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며 과학관의 문턱을 낮춰 대중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 관장은 "그간 우리 과학관은 온 직원이 한마음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과학의 즐거움을 전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과학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전화 (062)510-0412
e-메일 edit@jnilbo.com

본란은 애독자를 위한 무료서비스란입니다.
(보낼곳)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5층

전일 게시판

알림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알코올·인터넷·도박·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과 가족을 위한 무료상담 및 교육실시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062)413-1195

부고 ▽송향례씨 별세, 신준호(광주시의회 홍보소통담당관실 공보팀장)씨 모친상-발인:4일(금) 오전 7시30분 광주 만평장례식장 302호 특실 (062)611-0000

날씨와 생활		해돋이	해질	달돋이	달질
		05:23	19:51	13:04	00:05
오늘의 날씨 (최저/최고 기온)					
광주·나주 담양·화순			☀ 25/33	무안·함평 장성·영광	☀ 24/31
순천·광양 곡성·구례			☀ 24/34	장흥·영암 강진·완도	☀ 24/33
				여수·보성 고흥	☀ 24/30
전국 날씨		주간 날씨			
서울	☀ 25/32	대구	☀ 26/36	4일(금)	5일(토)
대전	☀ 25/33	제주	☀ 25/32	6일(일)	7일(월)
물때		생활 기상 정보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미세먼지	외출지수
07:24	00:47	03:15	10:16	우산지수	
20:05	13:39	16:28	22:25	자차필요 없습니다	